



### 광주 코레일, 유관기관 합동 안전 캠페인

코레일 광주본부는 26일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해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등 광주지역 주요 역사를 방문해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대국민 철도안전·자살예방 캠페인을 통해 철도이용객의 안전의식을 고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하고자 진행됐다.

광주본부는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광주송정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한 피켓 홍보와 함께 QR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건널목 공중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 시내 주요 역 등을 방문해 건널목 통행요령을 홍보했다.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철도가 더욱 안전한 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광주시, 자살 예방의 날 기념 뮤지컬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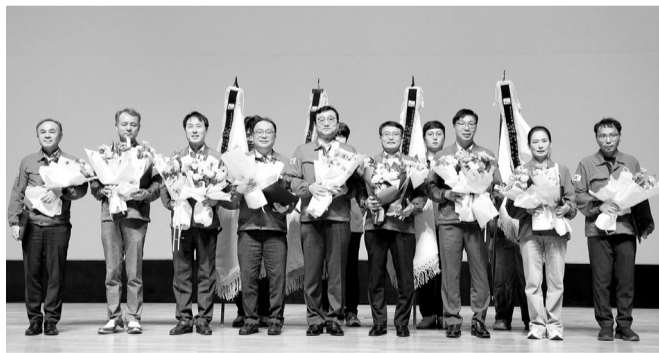
‘세계 자살 예방의 날’ (9월10일)을 기념해 무대에 올린 뮤지컬 ‘메리골드’가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감사함을 알리며 막을 내렸다. (사진)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25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뮤지컬 ‘메리골드’를 무대에 올렸다.

이 공연은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감사함을 알리고 자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시민 800여명이 객석을 메웠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남에게 말 못 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자살이라는 무겁고 슬픈 소재를 세련된 음악과 유틸 넘치는 대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줬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전남도는 민방위대 창설 제49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사진)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 22개 시군, 소방본부,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31보병사단, 제1전투비행단, 제3함대, 서해해경청, 민방위 대원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민방위대는 민간인이 주축이 돼 적의 침략이나 천재 지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편성된 조직이다. 지역민방위대는 1975년 9월 창설돼 지역의 각종 재난 사고 수습 및 복구 등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결의문 낭독,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 순서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목포시, 광양시, 곡성군, 장흥군이 도지사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단체와 개인 총 8명이 장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지현 기자**



### 전남자치경찰위 ‘섬 만들기’ 사업보고회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 섬 지역에 대한 표준 치안 모델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이날 보고회에는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전남도경찰청 범죄예방전담팀 등 관계자가 참여해 섬 지역 스마트 치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여수 하화도의 스마트가로등 최적지 선정 설계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여수시와 협의 내용 등을 공유하며 섬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치안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 사각지대 없는 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 동구, 건강도시상 2관왕 영예

광주 동구가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시상식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상’과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건강도시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WHO 건강도시상’은 WHO가 시상하는 상으로, 도시 건강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활동을 펼친 도시들을 9개 부문으로 선정해 수여한다. 동구는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지난해 대인동과 계림1동 쪽방촌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건강도시상’은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체계,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민현기 기자**



### (주)새로고침, 적십자 ‘바른 기업’ 캠페인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주)새로고침(대표 김희상)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대표 나눔 캠페인인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동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

광주 북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새로고침은 실내 건축자재 중 데코타일 등 바닥재 전반을,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희상 대표는 “작은 마음이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꾸준한 온정을 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씀씀이가 바른기업’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에 명패를 전달하고, 공익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박찬 기자**



### 기아, 장애인 야구경기 관람 이벤트 진행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계 25일 240명 장애인·보호자 초청

기아가 장애인들의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 증진에 앞장섰다.

26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해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야구경기 관람 초청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 및 전용 좌석, 40여 개의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갖췄으며 실시간 중계 음성 청취를 위한 단말기를 지원해 시각 장애인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친화형 구장이다.

기아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및 광주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들을 통해 지난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기아 타이거즈의 홈 최종전 경기에 총 240명의 장애인 및 보호자를 초청했다. **박소영 기자**

이날 기아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광주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초청 인원별 장애 유형에 적합한 안전한 입장 동선 안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주요 시설 위치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쾌적한 경기 관람을 지원했다.

초청 인원 전원에게 식음료비와 응원 도구를 증정했으며, 별도로 관련 기관을 통해 30인을 선정해 모자, 응원 타월, 사인볼이 들어 있는 기프트 박스를 증정했다.

또 지역 NGO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 장애인 및 보호자들의 안전한 입장 및 관람, 귀가를 도왔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초청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 기아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대마 소지·흡연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사진)가 법정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다.

또 올해 1월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 측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며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1월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통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1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곽지혜 기자**

### 샤이니 키, 신곡 ‘플레저 샵’ 등 음악방송 활동 돌입

신곡으로 돌아온 ‘샤이니(SHINee)’ 키(사진)가 음악방송 무대를 선보인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키는 이날 오후 6시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 27일 오후 5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뮤직뱅크’ 등에 출연한다.

키는 두 음악방송을 통해 세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 곡 ‘플레저 샵(Pleasure Shop)’과 수록곡 ‘오버싱크(Overthink)’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타이틀 곡 ‘플레저 샵’은 댄서블한

일렉트로 하우스 장르의 곡이며 또다른 신곡 ‘오버싱크’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리드미컬한 분위기의 감각적인 퍼포먼스가 기대된다.

한편, 키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메세 프랑크푸르트(Messe Frankfurt)에서 열리는 케이팝 팬&아티스트 페스티벌 ‘케이콘 저머니 2024(KCON GERMANY 2024)’에 출연한다. **곽지혜 기자**